

림프 부종 환자에서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을 통한 치료 효과

현혜연, 염창환*, 이혜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배경: 림프부종은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의 50%이상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병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치료 방법인 공기용 펌프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독일의 미셸 폴디 박사의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을 개발하여 치료를 실시한 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우리나라 림프부종 환자에서도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림프 부종으로 진단 받고 치료받은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 임상 증상,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 전후의 부종 감소 여부를 보았다.

결과: 22명 중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21명이며, 평균 연령은 49.9 ± 9.3 세이었다. 암의 종류는 자궁암과 유방암이 전체 86.4%를 차지하였다. 암 환자 21명 모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생겼으며, 부종 시기는 2~3기가 전체 중 81.8%를 차지하였다. 암 치료 후 부종이 발생한 시기는 1년 이내가 7명(33.3%), 1~3년이 5명(23.8%), 3년 이후가 9명(42.9%)이었다. 그리고 부종이 발현 된 후 림프부종 전문 병원에 찾아온 시기는 2.9 ± 3.9 년이었다.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 전후의 부종 감소 여부를 보면 치료 전에 부종 정도는 968.4 ± 545.3 ml이었던 것이 치료 후에는 337.3 ± 325.8 ml로 $65.0 \pm 33.2\%$ 만큼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게 호전되었다($P=0.033$).

결론: 림프부종 환자에서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은 우리나라 환자에서도 65%의 부종 감소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 치료 방법은 림프부종 치료에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유방암이나 자궁암 치료 후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환자에게 림프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초기부터 예방을 한다면 발생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질환에 걸린 후에도 림프부종 치료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복합적인 림프 치료법, 유방암, 자궁암, 수술, 방사선 치료